

『顧氏畫譜』의 전래와 朝鮮의 題畫詩

구 본 현*

-
- | | |
|--------------------|----------------|
| 1. 머리말 | 3. 『顧氏畫譜』의 題畫詩 |
| 2. 『顧氏畫譜』의 전래와 朱之蕃 | 4. 맺음말 |
-

I. 머리말

『顧氏畫譜』는 명나라의 顧炳이 중국의 역대 名家들의 그림을 모아 판각하여 印行한 畫譜이다. 『고씨화보』에는 六朝부터 明에 이르기까지 106인의 그림이 한 점씩 수록되어 있는데 산수·인물·화조 등이 망라되어 있다. 이전에는 이렇게 다양한 그림들을 한데 모아놓은 화보가 없었기 때문에 『고씨화보』는 중국의 판화사와 회화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화보라 할 수 있다.

한편 『고씨화보』는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과 일본에도 전해져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일찍부터 『고씨화보』의 전래와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고씨화보』를 模擬한 작품이나 『고씨화보』에 영향을 받은 작품 등은 조선후기 회화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어 왔다.¹⁾

『고씨화보』의 자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편찬자인 고병의 내력과 『고씨화보』 편찬의 경과는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朱之蕃이 쓴 서문에 그 대강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默然 顧炳은 西湖 땅의 유서 깊은 가문 사람이다. 고병은 어려서 고아가 되었는데 큰아버지

* 필자 :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조교

1) 『고씨화보』가 조선에 전래된 사실과 그 영향에 대해 논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許英桓, 〈顧氏畫譜 研究 —中國의 畫譜 3—〉, 『誠信研究論文集』 第三十一輯, 誠信女子大學校, 1991. 8; 宋惠卿, 〈『顧氏畫譜』와 조선후기 화단〉,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6; 김홍대, 〈322편의 시와 글을 통해 본 17세기 전기 『고씨화보』〉, 『溫知論叢』 第9輯, 溫知學會, 2003; 변미영, 〈『顧氏畫譜』와 朝鮮後期 山水畫〉, 『기초조형학연구』 Vol.5, No.2, 한국기초조형학회, 2004.

가 그 총명함을 사랑하여 (책)을 읽고 외는 일 등은 시키려 하지 않았다. 다만 옛날부터 소장했던 名人의 글씨와 그림을 꺼내어 마음껏 보게 하니 (고병은) 무척 빠르게 작자의 발자취를 좇게 되었다. (고병은) 이후에 이름난 산을 두루 다니고 훌륭한 선비들을 찾아다니기도 하다가 吳山 기슭에 떃집을 엮고 살았다.

재주가 날로 향상되어 기해년(1599년)에는 武英殿의 供事로 선발되었는데 동료들이 모두 존경하여 따랐다. 공무가 끝난 여가를 이용하여 예전에 보고 들은 것을 전부 모으고는 개탄하여 이르기를, “마음에 오가는 것, 그 흥을 붓에다 부치고 그 자취를 흰 비단에 부쳐 사람들 눈앞의 즐거움과 함께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이에 당과 송, 전대 및 오늘날[명]의 훌륭한 작품 가운데 拔群의 그림들을 모두 선발하여 힘써 模擬하였다. (그리고) 여러 名公에게 글을 붙여달라고 부탁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취를 통해 그 정신을 알게 하고 그림을 살펴 그 시대를 아울러 논하게끔 하니 널리 찾아다니거나 다시 구입하거나 멀리까지 생각하거나 힘써 구하지 않아도 경물의 뛰어난 것과 위치의 정묘함, 형상 밖의 전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모두 드러나 남은 것이 없었다. (중략)

선친께서 고병과 함께 노니신 것이 가장 오래되었고 고병의 그림에 대해 매우 칭찬하셨는데 이 화보가 완성되어 세상의 일대 볼거리가 된 것을 보지 못하신 것이 한스럽다. 화보가 완성됨에 외람되어 머리글을 써서 안목을 갖춘 이들에게서 함께 감상하시라고 아뢰다. 만력 계묘년(1603년) 12월 초하루에 금릉 사람 주지번이 쓰다.²⁾

위 서문에 따르면 고병은 어려서 고아가 되었으며, 그 총명함을 사랑한 고병의 큰아버지가 자신이 소장한 서화를 마음껏 보게 하여 서화에 대한 안목을 길러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고병은 名山을 편력하고 高士들을 만나면서 서화에 대한 감식과 솜씨를 널리 익힌 것으로 보인다.

고병의 솜씨는 나날이 향상되어 1599년에는 武英殿의 畫圓으로 선발되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公務 후의 여가에 건문을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씨화보』를 편찬했던 것이다. 주지번이 서문을 쓴 것이 1603년 12월 초하루인데 ‘此譜之成帙’, ‘譜成’ 등의 언급을 통해 주지번이 서문을 짓기 전에 화보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씨화보』는 1599년부터 편찬되기 시작하였으며 1603년에 완성된 것이다.

주지번이 『고씨화보』를 ‘宇內之一大觀’이라 칭송한 것만 보아도 서화에 대한 고병의 재

2) “默然顧君炳，西湖故族也。君少而孤，大父鍾愛其穎慧，不欲若以 之業。惟出舊所藏名人墨蹟畫片，令其恣意探索之， 乎追蹤作者。後遍歷名山，延訪高士，結茅吳山之麓。技日益進，比己亥歲，應選供事武英，流輩咸推服之。以退食之暇，搜羅故所見聞，慨然謂：‘往來於胸臆，不若寄興于毫穎；托跡于縑素，而公共於人眉睫之爲快也。’乃悉舉唐宋勝國及昭代名筆之卓爾不羣者，極力摸擬。屬諸名公系以贊述，俾覽者因跡以契其神，按圖而并論其世，不待博訪重購遐想力求，而景物之勝，位置之精，象外不傳之秘，亦其剖露，無餘蘊矣。(중략) 先大夫從默然游最久，于默然所自爲繪事，亟爲稱許，恨未見此譜之成帙而煥然爲宇內之一大觀也。譜成，僭題首簡，以詒諸四方具眼者，共鑑賞焉。萬曆癸卯季冬朔日金陵朱之蕃書。”(주지번, 〈顧氏畫譜序〉, 『歷代名人畫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奎 中5500)

주와 식견이 남달랐음을 알 수 있다. 『고씨화보』는 후대에도 널리 유행하여 ‘集大成’ 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³⁾

1603년에 初刊된 것으로 보이는 『고씨화보』는 이듬해인 1604년에 고병의 아들인 顧三聘, 顧三錫에 의해 校刊되었으며 1888년에는 石版本으로 印行되기도 하였다. 판본에 따라 수록된 그림도 107, 108점으로 증보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고씨화보』의 판본과 이본이 조선에 전해진 것으로 보이나 어떤 판본과 이본이 언제,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⁴⁾

『고씨화보』는 서화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한문학의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자료이다. 왜냐하면 광해군 시절에 지어진 『고씨화보』의 題畫詩가 여러 文人의 문집에 전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하는 『고씨화보』의 제화시는 洪瑞鳳, 洪命元, 柳瀟 등이 지은 것이다. 특히 유숙은 제화시를 짓게 된 정황과 『고씨화보』에 수록된 그림에 대한 견해를 夾註를 통해 밝히고 있어서 주목된다.⁵⁾ 유숙의 기록에 의하면 이들 이외에도 다섯 명의 문인들이 제화시를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들의 작품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고씨화보』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들만으로는 『고씨화보』의 전래 시기와 수용 양상을 고찰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고씨화보』의 제화시는 화보의 전래와 수용 양상, 영향 관계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한편 제화시를 지은 이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穆陵盛世라 불리는 한문학의 전성기였다. 홍서봉, 홍명원, 유숙 등은 모두 시문으로 이름이 높았던 문인들이다. 그러므로 『고씨화보』의 제화시와 관련 기록에 대한 검토는 조선시대 회화와 한시가 결합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고씨화보』의 제화시와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고씨화보』의 전래와 수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서화 감상과 한시 창작의 관련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당대 예술문화의 한 단면도 밝힐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3) “顧炳，字黯然，錢塘人。萬曆間，以善畫，供事內殿。就所聞見，繪爲畫譜，自晉唐以來，罔不傳摹，存其梗槩，鎔今鑄古，能集大成。”(清 姜紹書, 『無聲詩史』(『續修四庫全書·子部·藝術類』 1065, 上海古籍出版社, 1995, p.530b).

4)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고씨화보』에 대해서는 송혜경의 앞의 논문(p.70)을 참조.

5) 『고씨화보』의 제화시와 유숙의 협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들이 본 『고씨화보』가 채색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김홍대, 앞의 논문, pp.152-164).

2. 『顧氏畫譜』의 전래와 朱之蕃

『고씨화보』가 조선에 전래된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제기된 바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주지번(1564?)이 『고씨화보』를 전하였을 것이라는 가설이다.⁶⁾ 『고씨화보』의 서문을 쓴 주지번은 1606년에 황태자의 탄생을 알리는 詔使로 조선에 온 바 있는데 이때 『고씨화보』를 가져와 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주지번이 『고씨화보』의 서문을 썼다는 점, 주지번이 문장뿐만 아니라 글씨와 그림에도 남다른 식견과 재주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 조선에 왔을 때에도 글씨와 그림을 다수 남겼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고 있다.

주지번 역시 고병과 마찬가지로 생애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지 않다. 주지번은 시문에도 뛰어났으나 그보다는 서화에 대한 식견과 재주로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조선사행 시에도 문장과 학식, 서화에 대한 식견 등으로 조선의 관료와 문인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다. 또한 法書, 名畫, 古器 등을 수집하기를 매우 좋아하여 收藏家로 이름을 얻기도 하였다.⁷⁾

또한 주지번은 조선사행 시에 서책과 서화를 전해 주기도 하였으며 직접 글과 글씨, 그림 등을 제작하여 주기도 하였다.⁸⁾ 그러나 그러한 기록 가운데 『고씨화보』를 조선에 전래하였다는 기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지번이 『고씨화보』를 전래하였을 것이라는 가설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고씨화보』의 경우와는 달리, 주지번이 조선사행 시에 전해준 〈千古最盛〉이나 〈十二畫帖圖〉의 경우에는 제작과 전래의 과정이 비교적 자세히 전한다. 이는 『고씨화보』가 주지번에 의해 전래되지 않았다는 추측의 한 근거가 된다.

〈千古最盛〉은 주지번이 吳綱川에게 부탁하여 스무 폭의 산수화를 그리게 하고 자신이 글을 짓고 써서 붙인 화첩이다. 주지번은 이 화첩을 遠接使이자 伴送使이기도 했던 柳根(1549-1627)에게 주었다. 유근은 천고최성의 跋文을 쓰고 이 화첩을 宣祖에게 入啓하였다.⁹⁾ 주지번은 許筠(1569-1618)에게도 천고최성을 보여주며 발문을 지어 올리라고 명하기

6) 이 가설은 허영환(앞의 논문, pp.14-15)이 처음 제기하였는데 이후 연구자들은 대부분 이 가설을 수용하고 있다.

7) “之蕃, 字元价, 金陵人. 萬曆乙未壯元, 官終吏部右侍郎. 元价爲史官, 出使朝鮮, 盡却其贈賄, 鮮人來乞書, 以貂參爲費, 裝顧反厚, 盡斥以買法書·名畫·古器, 收藏遂甲於白下. 詩篇冗長, 頗不爲藝林所許. 和移居二首, 頗瘦勁, 非其本色, 喜而亟錄之.”(錢謙益, 『列朝詩集小傳·丁集·上』, 上海古籍出版社, 1959, p.46)

8) 일례로 주지번이 迎恩門과 慕華館의 편액을 써준 사실을 들 수 있다. 『국역 조선왕조실록』 선조 39년 6월 3일 경자 참조.

9) “萬曆丙午春, 受國君之命, 迎候設使于江上. 正使大人乃於過江之初, 出示千古最盛一帙, 要不佞題一語以爲跋. 不佞屢辭不獲命, 竊觀卷中, 有圖畫有詩文, 若桃源記以不摠二十幅, 皆古人所作而大人所自書也.”(유근, 〈千古最盛跋〉, 『西坵文集』(한국문집총간 57), 권6, pp.508c-508d)

도 하였는데¹⁰⁾ 이로 보아 주지번은 <천고최성>을 매우 아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천고최성>은 궁 밖으로 전해지게 되었고 이를 본 許箴(1548-1612)이 李澄과 李瀟 형제에게 각각 그림과 글씨를 베끼게 하여 摹本을 만들었다.¹¹⁾ 한편 이 모본을 본 金佐明(1616-1671)은 同庚인 李正英, 金宇亨, 柳赫然 등과 함께 또 다른 모본을 만들기도 하였다.¹²⁾

<십이화첩도>는 주지번이 직접 그린 화첩인데 初本은 선조에게 바치고 副本은 유근에게 주었다고 한다. 유근에 의해 家傳된 부분 역시 許穆(1595-1682)의 주도 아래 모본이 제작되었다.¹³⁾ <천고최성>과 <십이화첩도> 모본의 제작에는 문장과 글씨로 이름난 인물들이 다수 참여하였는데 이를 통해 화첩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고씨화보』는 분량이나 내용 면에서 <천고최성>이나 <십이화첩도>에 뒤질 것이 없는 화보이므로 주지번이 『고씨화보』를 전래하였다면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을 법하다. 주지번은 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사행 과정에서 지은 시문과 그를 接伴한 조선 문인들의 시를 한데 묶어 『奉使朝鮮稿』를 편찬하였다.¹⁴⁾ 그런데 『봉사조선고』에도 『고씨화보』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주지번의 사행에 대한 다양한 기록 가운데에서 『고씨화보』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 것은 주지번이 『고씨화보』를 전래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또 다른 자료는 『고씨화보』를 보고 李好閔(1553-1634)이 남긴 기록이다.

무신년에 玉河館에서 고병이 만든 화보를 보았다. 마음으로 즐거워하였으나 돈이 없어서 구입할 수가 없었다. 고병이 그림 아래에 그린 사람의 성명, 鄉貫, 傳授한 바를 붙여놓았는데 자못

- 10) “二十五日, 中火雲興, 宿定州. 上使出千古最盛, 令使製跋以進.”(허균, <丙午紀行>, 『惺所覆瓿稿·文部·十五·紀行·上』(충간 74), 권18, p.290d)
- 11) “朱太史 吳軻川 小景二十幅, 皆取古名人詩文可入於 者以載之. 又自書文與賦若詩於其下, 誠好事也. 其本自內, 今在義昌家, 舍兄 李澄 之, 其嫡兄瀟書之, 書雖不及朱公, 而 則優焉.”(허균, <題千古最盛後>, 『惺所覆瓿稿·文部·十·題跋』(충간 74), 권13, p.246c)
- 12) “往在癸卯春, 過西谷李侍郎所, 案上有一 帖, 題曰千古最盛. 余取而閱之, 卽皇朝朱太史蘭嶠與吳軻川托興而爲之者. 萬曆丙午, 蘭嶠奉詔東來, 我朝諸公於僉接之際, 得 此貼, 遂摹寫而行于世.”(김좌명, <書千古最盛貼摹本後>, 『歸溪遺稿』(충간 122), 卷下, p.278c)
- 13) “此貼初本, 萬曆詔使朱之蕃手 進宣廟, 其副本, 贈西垞柳相公, 傳於家. 今又得此本模此云, 又求書皆一時文學, 趙龍洲·孫晚悟·李聽蟬·吳竹南以下累十人, 亦可觀, 識之. 上之十年三月上弦前一日, 眉叟, 書.”(허목, <模朱太史十二 貼圖序>, 『記言·下篇·書』(충간 98), 권29, p.150c)
- 14) 『봉사조선고』 말미에 실린 해설은 다음과 같다. “明朱之蕃撰. 之蕃, 字元价, 荏平人, 南京錦衣衛籍. 萬曆乙未進士第一, 官至吏部右侍郎. 之蕃以萬曆乙巳冬, 被命使朝鮮, 丙午春仲出都, 夏抄入關, 與館伴周旋有倡必和, 錄爲二大册. 第一册爲奉使朝鮮稿, 前詩後雜著, 之蕃作也. 第二册爲東方和音, 朝鮮國議政府左贊成柳根等詩也. 末有乙未制策一道, 及東閣倡和詩數首, 爲讀卷官沈演等作, 蓋後人所附. 千頃堂書目載之蕃使朝鮮稿四卷, 紀勝詩一卷, 南還雜著一卷, 廷試策一卷, 落花詩一卷, 如此大同小異, 蓋所見者又一別本云.”(『奉使稿』(無卷數, 兩江總督撰進本), 『奉使朝鮮稿』(四庫全書存目叢書編纂委員會 編, 『四庫全書存目叢書·集部·一七六』), 齊魯書社, 1997, p.625a)

자세하였다. 一時 名人의 솜씨를 빌려 썼는데 일을 서술한 것 또한 精簡하여 법도가 있었다. 그 문장이 또한 글씨를 쓴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李彦華에게 부탁하여 별책으로 옮기게 하고 아울러 黃公望의 寫訣을 쓰게 하였다. 장차 고국의 솜씨 좋은 이에게 가져가 쫓아 만들게 하면 그 山水, 花卉, 禽鳥, 林木이 오직 내가 명하여 즐기는 바이니 산림에서 늙어 마치고 좋은 놀이라고 생각할 따름이다. (중략) 6월 초7일 睡翁이 옥하관에서 쓰다.¹⁵⁾

이호민은 1608년에 선조의 昇遐와 광해군의 즉위를 알리는 告訃請諡承襲使로 명나라에 간 적이 있는데¹⁶⁾ 이때 옥하관에 머물면서 『고씨화보』를 보고 위의 기록을 남긴 것이다. 이호민에게 『고씨화보』를 보여준 이는 아마도 중국의 상인이거나 옥하관의 館夫였을 것이다. 외국의 사신이 머무는 숙소였던 옥하관은 館夫와 譯官을 중심으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였기 때문이다.¹⁷⁾

이호민은 『고씨화보』가 마음에 들어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호민은 이전의 사행에서도 서책을 구입하여 선조에게 바친 적이 있었다. 그 서책들은 대부분 經書이거나 治世와 관련된 것들이었다.¹⁸⁾ 화보와 같은 것들은 사적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이호민에게는 그러한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위 기록에서 주목되는 것은 주지번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주지번이 조선에 왔을 때 주지번을 영접하는 館伴이 곧 이호민이었기 때문이다. 이호민은 주지번이 조선에 오기 전부터 주지번에 대해 알고 있었다.¹⁹⁾ 주지번이 조선에 오자 이호민은 주지번과 여러 차례 어울렸는데 이 과정에서 지은 시가 주지번의 『봉사조선고』와 이호민의 문집인 『五峯集』에 여러 편 실려 있다.

이호민과 주지번의 사이가 매우 가까웠음은 주지번이 이호민의 彰賜亭을 방문하여 시를

15) “戊申歲，在玉河館，見顧炳所爲 譜，心樂之而無金不能得也。炳於各 下，貼 者姓名鄉貫所傳授，頗詳派。借一時名人筆書之，而其叙事亦精簡有法，未知其叙並出於筆之者之手乎。 李堂彦華，移之別冊，並書黃子久所爲寫訣，則 雖無，而 者之姓名與法存焉。將持向吾東諸老師，追前人而作之，其山水花卉禽鳥林木，唯我所命而樂之者，以爲山林終老之一玩耳。(중략) 是歲六月初八日，睡翁書于玉河館中。” (이호민, 〈 譜訣跋〉, 『五峯集』(충간 59), 권8, pp.438c-438d)

16) 『국역 조선왕조실록』 광해 즉위년 2월 6일 계해.

17) 옥하관의 공식명칭은 會同館이다. 옥하관은 中玉河橋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생긴 속칭이다. 옥하관에서서의 교역에 대해서는 “옥하관에 머물러 있을 때에 어려움이 비록 많겠으나 譯官 등이 館夫와 더불어 모의하여 여러 가지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은 으레 나올 때에 합니다”(『국역 조선왕조실록』 광해 11년 12월 29일 무인)라고 한 李廷龜의 언급이 참고가 된다. 옥하관에서의 교역은 인조 이후에 매우 활발해져서 柵門, 中江과 함께 3대 後市[뒷장]로 불리기도 하였다.

18) 이호민이 1600년에 구입하여 선조에게 바친 책은 四書三經, 『中庸或問』, 『大學或問』, 『君臣圖鑑』 등이었다. 『국역 조선왕조실록』 선조 33년 6월 7일 무인 참조.

19) 사신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선조가 주지번에 대해 묻은 적이 있는데 이때 이호민이 주지번의 詩才를 칭송한 바 있다. 『국역 조선왕조실록』 선조 39년 1월 23일 임진 참조.

지어주고²⁰⁾ 이호민이 이에 화답한 사실²¹⁾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호민은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물품을 팔아 彰賜亭을 지었는데²²⁾ 주지번이 이곳을 방문하여 이호민과 시를 주고 받은 것이다. 이호민이 『고씨화보』를 본 것이 1608년이므로 주지번을 만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이다. 그러므로 주지번이 『고씨화보』를 조선에 전래하였다면 옥하관에서 『고씨화보』를 본 이호민이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한편 이호민이 본 『고씨화보』에는 주지번의 서문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호민이 주지번의 서문을 보았다면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해 언급하였을 것이다. 게다가 이호민은 『고씨화보』에 적힌 해설을 누가 짓고 썼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주지번의 서문에는 고병이 名家들에게 글과 글씨를 부탁하여 모본에 덧붙였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즉 글씨를 쓴 사람과 글을 지은 사람이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호민은 이를 몰랐던 것이다. 이호민이 주지번의 서문을 보았다면 당연히 이와 같은 의문을 품지 않았을 것이다.

이호민의 기록은 곧 주지번이 『고씨화보』를 조선에 전래하였을 것이라는 가설과는 부합하지 않는 자료라고 하겠다. 또한 이호민이 본 『고씨화보』는 주지번이 쓴 서문이 없는 판본이었으리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결국 『고씨화보』가 언제, 어떻게 전래되었는지를 밝혀려면 새로운 자료를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선조, 광해군 연간은 명나라와의 사절 왕래와 교역이 매우 활발한 시기였다. 아마도 『고씨화보』는 이러한 과정에서 전래되었을 것이다. 사신이 직접 구입하였을 수도 있고 수행하였던 역관이나 屬僚가 구입하여 조선에 전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이호민의 명에 따라 『고씨화보』의 글을 베낀 이언화(1556-1629)는 華語에 능하기로 유명한 역관으로 글씨도 뛰어났던 인물이다.²³⁾ 이언화 역시 역관이었으므로 사절을 따라 명과 조선을 왕래하며 교역에 종사하였을 것이다. 일례로 이언화는 명나라에서 새로이 간행한 韻書를 구입하여 趙希逸에게 바치기도 하였다.²⁴⁾

20) “玉陸親承帝賜金，歸來卜築買青林。峯巒東郭探深秀，花鳥溪南素心。晴日三竿烘倚枕，鳴川一派助絃琴。憐予頗諳滄洲趣，海表追從足賞音。”(주지번, 〈彰賜亭(爲領中樞府李五峯題)〉, 『奉使朝鮮稿』(위의 책), p.567d)

21) “買山會費尙方金，鴈足題恩到上林。續荷皇華吟白雪，應憐窮海繫丹心。庭松入夜生天籟，澗水縈門聽玉琴。堪笑此情良自苦，有聲皆似郢中音。”(이호민, 〈次正使朱蘭嶠韻(并小序，丙午館伴作)〉, 『五峯集』(충간 59), 권5, p.388d)

22) 창사정의 내력은 李恒福의 글에서 알 수 있다. “大學士李公，既遷兆于吾鄉，仍以朝天欽賜，斥賣爲資，構亭其下。徵文於余曰：‘異時東門，携手同歸，子當爲東道主，將以是發輝鷄豚社，豈非幸歟!’”(이항복, 〈李學士好閔彰賜亭序〉, 『白沙先生集』(충간 62), 권2, p.189d)

23) 이언화의 생애는 『통문관지』에 기록되어 있다. 『국역 통문관지·인물』 제7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pp.27-28.

24) 조희일이 이언화에게 감사의 뜻으로 지어준 시에 “中國有新刊，此法近所。”(〈李彥華贈韻書新刊，不作編卷，連帖一張，甚便袖裏藏閱，因寄詩以謝〉, 『竹陰先生集』(충간 83), 권9, p.232c)이라 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추측해보면, 이호민이나 이언화 같은 사신 또는 수행원들 중 어느 누군가가 옥하관에서의 교역 등을 통해 『고씨화보』를 구입하여 전래하였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 정도의 추측 이상으로는 사실에 접근하기 힘든 형편이다.

한편 『고씨화보』의 전래 시기는 李暉光(1563-1628)의 기록에 의해 하한을 알 수 있다. 이수광은 『芝峰類說』에서 『고씨화보』에 실린 화가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이 가운데 唐의 周昉, 宋의 徽宗과 文與可, 元의 康里夔夔 등이 화보에 실리지 않은 까닭에 의문을 제기하였다.²⁵⁾ 이수광이 『지봉유설』의 서문을 쓴 것이 1614년이므로²⁶⁾ 『고씨화보』는 그 이전에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씨화보』의 전래 시기의 상한을 추측하기 위해서는 홍서봉, 홍명원, 유숙 등이 남긴 『고씨화보』의 제화시가 참고가 된다. 이들의 제화시는 또한 당대 문인들이 지닌 서화에 대한 식견, 서화의 감상과 한시 창작의 연관 양상 등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의 제화시를 살펴해보도록 한다.

3. 『顧氏畫譜』의 題畫詩

洪瑞鳳(1572-1645), 洪命元(1573-1623), 柳瀟(1564-1636)의 제화시는 모두 五言絶句로 각각의 문집에 실려 있다. 홍명원과 유숙의 제화시는 107수인데, 홍서봉의 경우에는 林良의 그림에 대해 두 수의 제화시를 지어 총 108수가 된다. 『고씨화보』의 초간본에는 106점의 그림이 수록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고병의 두 아들이 1604년에 校刊한 『고씨화보』에는 王若水와 劉節의 그림이 추가되어 108점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홍서봉 등이 본 『고씨화보』는 馬秀眞의 그림이 추가되어 있는 판본이다. 한편 현재 전하는 尹斗緒 手澤本 『고씨화보』와 吳世昌 소장본 『고씨화보』에는 106점 외에 路從廣의 그림이 추가되어 있다.

이렇듯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였다는 것은 초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씨화보』의 증보와 校刊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고씨화보』의 인기를 짐작케 하는 것이기도 하다. 홍서봉 등이 백여 수에 달하는 제화시를 차례로 돌아가며 지은 것 역시 앞뒤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인데, 아마도 『고씨화보』를 보고 느낀 놀라움

25) “按 譜, 六朝時顧愷之·陸探微·張僧繇·顧野王, 唐閻立德·閻立本·吳道玄·鄭虔·李思訓·李昭道·王維·韓幹·戴嵩, 五代關仝·黃筌, 宋仁宗·高宗·李公麟·郭忠恕·范寬·李成·郭熙·趙昌·蘇軾·米芾·趙伯駒·僧巨然·米友仁·劉松年·馬遠·馬麟, 元趙孟頫·管夫人·柯九思·黃公望·倪瓚·方壺, 皇明戴進·夏昶·林良·杜堇·文徵明·莫雲卿, 餘不可悉記。如唐周昉·宋徽宗·文與可·元夔夔等, 不入於譜中, 何也? 管夫人, 按李齊賢詩註: ‘趙孟頫夫人管氏亦工書’云, 蓋此也。”(이수광, 『芝峰類說』·技藝部·畫, 권18)

26) 『지봉유설』의 서문에 “萬曆四十二年七月中泮, 李暉光書.”라 하였다.

과 즐거움이 이러한 詩作을 가능케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의 제화시는 『고씨화보』의 전래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문집은 대개 詩文의 체재와 제작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편집된다. 즉 詩文의 체재를 중심으로 分卷하고 그 안의 순서는 제작 시기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고씨화보』 제화시의 전후에 수록된 한시들의 제작 연대를 살펴보면 『고씨화보』 제화시의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홍명원의 『海峯集』 초간본은 시대순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홍서봉의 『鶴谷集』은 詩體別로 구분한 뒤 대략 시대순으로 편집하고 있으나 간혹 순서가 뒤바뀐 경우도 보인다. 한편 유숙의 문집인 『醉吃集』은 詩體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 연대순을 고려하여 편찬되었는데 干支를 통해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시들의 경우 순서의 도착이 없이 정연하게 편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숙의 제화시는 문집의 맨 처음에 실려 있다. 그 뒤로 1608년에 지은 〈戊申秋, 泛舟遊安昌江上, 奉贈成察訪(僖耆)〉와 1609년에 지은 〈己酉春, 以遠接使從事官過松都有感〉 등이 실려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유숙이 『고씨화보』의 제화시를 지은 것은 1608년 가을 이전이 되며 『고씨화보』의 전래는 그보다 빠른 셈이 된다. 물론 이는 추측에 불과할 뿐 제화시의 창작 연대와 『고씨화보』의 전래 시기를 확정지을 수는 없다. 홍서봉의 『학곡집』 역시 『고씨화보』의 제화시 전후로 1608년과 1609년에 지은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제화시를 지은 것은 1609년 이전이라 할 수 있으며 『고씨화보』의 전래 시기는 이보다 앞선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한편 『고씨화보』의 제화시는 『고씨화보』의 전래 시기뿐만 아니라 당시 문인들이 그림을 이해하고 감상했던 실제 양상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특히 유숙은 제화시를 짓게 된 경위와 함께 각 제화시마다 협주를 남기고 있어서 저간의 상황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먼저 〈題古帖〉이라는 제목 아래 유숙이 남긴 협주는 다음과 같다.

화첩은 무릇 네 권이다. 어우 숙부께서 먼저 지으시고 녹문, 창주, 학곡, 해봉, 구강, 남옹이 차례로 화답하였다.²⁷⁾

위의 기록만으로는 『고씨화보』가 누구의 소유이며 어떻게 구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다만 柳夢寅(1559-1623)이 처음 제화시를 지은 것으로 보아 유몽인이 『고씨화보』를 소장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유몽인의 『於于集』에는 『고씨화보』의 제화시가 전하지 않는다. 유몽인이 詩禍에 걸려 伏誅되었으므로 그의 시문이 제대로 수집, 정리

27) “帖凡四卷. 於于叔父首題. 鹿門·滄洲·鶴谷·海峯·九江·南翁迭和.”(『醉吃集』(총간 71), 권1, p.7a)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씨화보』에 제화시를 남긴 이들은 모두 인척이거나 가까운 知友들이었다. 당대에는 문장과 학식으로 이름난 집안끼리 혼사를 맺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에 열거된 인물들 역시 인척들이거나 평소에 시문을 통하여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이러한 연유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씨화보』를 둘러보면서 차례로 제화시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유숙이 ‘於于叔父’라 한 것처럼, 맨 나중에 제화시를 지은 유숙은 유몽인의 조카이다. 즉 유숙의 아버지인 柳夢彪는 유몽인의 형이다. 한편 유숙의 고모가 洪天民과 결혼하여 홍서봉을 낳았으므로 홍서봉과 유숙은 외사촌지간이 되고 유몽인은 홍서봉의 외삼촌이 된다.

그리고 홍서봉의 작은아버지인 洪逸民의 손자가 곧 홍명원이다. 그러므로 홍서봉은 홍명원의 堂叔이 된다. 유몽인과 유숙, 홍서봉, 홍명원은 이러한 인척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고씨화보』를 둘러가며 열람하였던 것이다.

鹿門은 洪慶臣(1557-1623)을 가리킨다. 홍경신 역시 본관이 南陽이므로 홍서봉, 홍명원과是一家인 셈이다. 홍경신은 젊은 시절부터 詩名을 얻은 인물인데 유몽인보다도 가까운 사이여서 시를 주고받았다.²⁸⁾ 1603년에는 유몽인이 우부승지, 홍경신이 동부승지로 임명되어 같이 승정원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²⁹⁾ 한편 홍경신의 형인 洪可臣은 아들 洪榮을 許箴의 딸에게 장가보내 사돈지간을 맺기도 하였다.

滄洲는 車雲輅(1559-?)를 가리킨다. 차운로는 아버지인 車軾과 더불어 형제들이 모두 시문으로 명성을 얻었다. 형인 車天輅는 특히 발군의 詩才로 당대에 명망을 얻었던 인물이다. 延安 차씨 가문은 開城에 근거를 둔 寒微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명문거족들과 혼인을 맺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시문에 뛰어났던 까닭에 차운로와 차천로 등은 당대의 명망가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되었고 興陽 柳氏와 南陽 洪氏 가문과도 교류하였던 것이다.

九江은 邊應璧(1562-?)을 가리킨다.³⁰⁾ 변응벽 역시 시를 잘 지어 權, 李安訥, 成汝學, 陸大欽, 李植, 李明漢 등 당대에 시문으로 이름이 높았던 이들과 시를 주고받았다. 한편 변응벽의 큰아버지 邊愷는 홍천민, 홍일민 형제의 누이를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즉 변응벽과 홍서봉, 홍명원 등도 인척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南翁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 기존 연구에서는 南翁을 金輅(1564-1636)로 보았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김주의 문집인 『雲巖先生文集』에는 『고씨화보』와 관련된 제화시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김주가 南翁이라는 호를 쓴 용례 역시 잘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유숙이 1614년에 지은 시의 제목에 ‘金南翁大諫’이라는 구절이 보인다.³¹⁾ ‘金南翁大諫’이 『고씨화보』의 제화시를 지은 南翁과 동일인물이라면 1614

28) 유몽인, 〈次洪德公慶臣韻〉, 『於于集』(총간 63), 권1, pp.310c-310d.

29) 『국역 조선왕조실록』 선조 36년 10월 4일 병술.

30) 변응벽의 자는 明叔, 호는 九江, 본관은 原州이다. 『문과방목·선조 33년·庚子別』 참조.

년에 대사간을 지낸 金氏 姓의 인물이 곧 南翁인 셈이다.

1614년은 庶人으로 강등되어 강화도에 圍籬安置된 永昌大君이 살해된 해이다. 이해 2월에 鄭蘊(1569-1641)이 죽은 영창대군을 옹호하는 내용의 상소를 올려 事端이 일어났다.³²⁾ 광해군은 이 상소를 매우 언짢게 여겼는데 당시에 승지였던 유숙이 정온의 상소를 보고 글자를 몇 군데 고쳐 입계한 일이 또 문제가 되었다.³³⁾ 이 때문에 유숙은 추고를 당하게 되었고³⁴⁾ 결국은 파직되었다.³⁵⁾ 유숙은 이때의 심정을 시로 읊어 당시 대사간이었던 ‘金南翁’에게 답하였던 것이다.

당시에 대사간으로 있었던 이는 金緞(1577-1625)이다. 김치의 호는 南峯인데 호의 끝 글자를 ‘翁’으로 바꿔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南峯과 南翁을 동일한 名號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또한 김주의 대표적인 호가 雲巖인 것을 고려한다면 南峯을 南翁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보다 이치에 합당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치의 문집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南翁을 김치로 확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여전히 없는 셈이다.

김치는 시와 문장보다는 經世에 뛰어났던 인물인데 그의 아들인 金得臣은 부친의 시가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고 칭송한 바 있다.³⁶⁾ 한편 김치의 처남인 睦大欽(1575-1638)은 문장으로 이름난 문인이었는데 변응벽과 시를 수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김치와 변응벽 사이에서도 교유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고씨화보』에 제화시를 지은 사람은 모두 8명이지만 현재 남아 있는 제화시는 홍서봉, 홍명원, 유숙 세 사람의 것뿐이다.³⁷⁾ 이들의 제화시는 그림의 내용을 묘사하거나 그 뛰어난 점을 칭송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유숙의 경우에는 협주를 통하여 그림의 감상에 대한 소견을 밝혀놓고 있어서 홍서봉, 홍명원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의 시는 그림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경우이다.

31) “袖裏彈文借我閑，閉門深巷伴春山。爐煙散盡蒲團淨，滿壑松聲午夢間(爾瞻自號觀松，松聲指爾瞻也.)”(유숙, 〈散後簡答金大諫南翁(甲寅春，以承旨參論鄭桐溪伸永昌冤疏辭，以此被臺劾遞職)〉, 『醉吃集』(총간 71), 권2, pp.35b-35c)

32) 『국역 조선왕조실록』 광해 6년 2월 21일 계묘.

33) 『국역 조선왕조실록』 광해 6년 2월 22일 갑진.

34) 『국역 조선왕조실록』 광해 6년 2월 23일 을사.

35) 『국역 조선왕조실록』 광해 6년 2월 28일 경술.

36) “余先人，號南峯，自少爲文詞，便自成家，而罕有知之者。”(김득신, 『終南叢志』(許捲洙·尹浩鎮 교정, 『原文 詩話叢林』, 까치, 1993, p.216))

37) 유숙의 협주에 차운로가 지은 작품이 한 수 전한다. 유숙은 李昭道의 그림에 대하여 “父子傳家法，松臺一樣平。滄洲眞具眼，絕勝 師評。”이라 읊었다. 그리고 협주에 “李昭道，思訓之子也。與思訓所 一法。滄洲車萬里詩曰：‘雲山變機軸，臺榭幻東西。本無傳家法，終慙筆力低。’眞知 者也。”라 하여 차운로의 제화시를 인용하였다.

전수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말고
 모름지기 골상이 기이한 것을 보라.
 용정³⁸⁾이 응당 변하여 떠나갔으리니
 그림자만 푸른 버들의 가지에 붙어 있구나.
 莫謂流傳誤 須看骨相奇
 龍精應化去 影著綠楊枝³⁹⁾

당나라 韓幹이 버드나무에 말이 매여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을 보고 지은 시이다. 한간은 曹 에게 그림을 배웠는데 둘 다 말과 인물을 잘 그리기로 유명한 화가였다.⁴⁰⁾ 유숙은 이에 대해 “한간의 말 그림이다. (한간은) 조패를 스승으로 삼아 骨肉停均法을 얻어 杜甫가 일찍入室하였다고 칭송하였다. (그러나) 기운이 없고 붓놀림이 잘못되었다”⁴¹⁾고 하였다. 한간이 조패로부터 빼와 살(근육)의 균형을 잘 맞추어 그리는 법식을 배워서 성취를 이루었으나 정작 기운과 정신을 놓쳐버려 꺾데기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말의 기상은 햇빛이 되어 사라져버리고 오직 그림자 같은 형체만이 앙상하게 버드나무 가지에 붙어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유숙의 이러한 해석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이는 그림에 대한 유숙의 감식안이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간의 말 그림은 다른 것들과는 달리 매우 개성적이다. 유숙이 언급한 것처럼, 두보는 한간의 재주가 일찍 높은 경지에 들었다고 칭송하면서 독특한 형상을 잘 표현하였다고 칭송한 바 있다.⁴²⁾ 尹斗緒는 『고씨화보』를 열심히 모의하여 畫業을 익히는 방편으로 삼았는데 한간의 말 그림 역시 모의의 대상이었다.⁴³⁾ 이는 한간의 그림이 뛰어났음을 방증하는 사례라 할 만하다.

서화에 대한 유숙의 식견이 그리 높지 않았음은 『고씨화보』의 잘못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 人名을 혼동하거나 잘못 표기하고 있는 점 등에서도 확인된다.⁴⁴⁾ 또한 유숙은 그림을 보고 무엇을 그린 것인지 잘 알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곳곳에서 밝히고 있

38) 龍精은 龍馬를 가리키기도 하며 태양을 가리키기도 한다. 여기서는 龍馬의 기운이 햇빛이 되어 사라졌다는 뜻으로 보인다.

39) 유숙, 〈題古畫帖〉, 『취홀집』(총간 71), 권1, p.7b.

40) 『歷代名畫記』에 조패에 대해서는 “曹霸魏曹髦之後. 髦畫稱於後代. 霸在開元中已得名, 天寶末, 每詔寫御馬及功臣, 至左武衛將軍.”이라 하였고 한간에 대해서는 “韓幹, 大梁人. 善寫貌人物, 尤工鞍馬. 初師曹霸, 後自獨擅.”이라 하였다.

41) “韓幹 馬. 師曹 得骨肉停均法, 杜詩稱早入室. 此帖氣餒筆訛, 故識之.”(유숙, 〈題古 帖〉, 『취홀집』(총간 71), 권1, p.7c)

42) 두보는 〈丹青引贈曹將軍霸〉에서 “弟子韓幹早入室, 亦能 馬窮殊相.”이라고 하였다.

43) 송혜경, 앞의 논문, pp.71-72.

44) 송혜경, 앞의 논문, pp.67-68.

다.⁴⁵⁾

홍서봉과 홍명원도 유숙과 크게 다르지 않아 그림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제화시를 짓기도 하였다. 金萬重(1637-1692)은 홍서봉이 吳道玄의 그림을 잘못 이해하여 觀音을 仙子로, 鸚鵡를 靑鳥로 옳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⁴⁶⁾ 홍명원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⁴⁷⁾

이처럼 중국에서 전래된 그림의 내용과 수법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림을 감상하거나 이에 시를 지어 붙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화에 뛰어나 명나라 문인이나 화가들에게 칭송을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⁴⁸⁾ 안목을 갖추지 못한 채 서화를 감상하거나 제화시를 짓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다. 아래의 기록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명종이 일찍이 그림을 하나 얻어 여러 신하에게 꺼내어 보여주었는데 모두들 무슨 그림인지 알지 못하였다. 호음 정사룡이 나아가 아뢰기를, “이것은 서호도입니다.” 하고 마침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뢰기를, “이것은 영은사입니다. 이것은 용금문입니다. 이것은 소식이 지은 제방입니다. 이것은 전류의 터입니다. 이것은 조하의 집입니다. 이것은 임포의 집입니다.” 하니 역력한 것이 일찍이 직접 눈으로 본 듯하였다.⁴⁹⁾

명종이 그림을 보여주며 무슨 그림이냐를 묻자 여러 신하들이 모두 알지 못하였는데 오직 정사룡만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산수를 그린 것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와 典故에 해박하지 않고서는 그림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유숙이나 홍서봉, 홍명원도 이와 마찬가지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화시를 지었던 것이다.

중국의 그림에 대한 이해는 이처럼 미숙한 단계를 거쳐 이후 명, 청과의 문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하게 되었고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서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게 된 것이다.

45) 김홍대, 앞의 논문, p.166, p.172.

46) “鶴谷詩才雖高, 取才不博. 公集中, 有題顧氏畫譜百首絕句, 其咏吳道子畫曰云云(當錄全篇). 後見畫譜, 乃善財參觀世音圖. 公蓋誤認觀音爲仙子, 鸚鵡爲靑鳥耳. 前輩之不看外家雜書, 可知.” (김만중, 『西浦漫筆』, p.627. 李鍾殷·鄭珉 編, 『韓國歷代詩話類編』, 亞細亞文化社, 1988, p.234b에서 재인용)

47) 홍서봉의 시는 “暫駐芙蓉車, 波恬紫海水. 阿母別千年, 忽逢西來使.” (『鶴谷集』(총간 79), 권1, p.445d) 이고 홍명원의 시는 “脚下芙蓉蕊, 瓶中楊柳枝. 瑤池路多少, 靑鳥報佳期.” (『海峯集』(총간 82), 권1, p.159c)이다.

48) 예컨대 주지번은 조선사행 시에 李楨의 그림과 韓濩의 글씨를 매우 칭송하였다.

49) “明廟嘗得一圖, 出示群臣, 皆莫知其爲何圖也. 湖陰鄭士龍進曰: ‘此乃西湖圖也.’ 遂以手指點曰: ‘此靈隱寺也. 此湧金門也. 此東坡所築之堤也. 此錢鏐之墟也. 此趙嘏之舍也. 此林處士之所舍也.’ 歷歷若曾所目見.” (金得臣, 『終南叢志』, p.360. 李鍾殷·鄭珉 編, 위의 책, p.182b에서 재인용)

4. 맺음말

1603년에 처음 인행된 『고씨화보』는 1609년 이전에 조선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누구에 의해 전래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명과의 외교와 교역으로 왕래하던 사절을 통해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에 들어온 『고씨화보』는 이후에 문인들과 화가들에게 널리 열람되었고 조선후기 서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호민의 기록과 『고씨화보』 제화시 이후에도 『고씨화보』에 대한 기록이 여럿 확인된다. 허목은 젊은 시절에 『고씨화보』를 보았다고 하였고⁵⁰⁾ 이수광의 증손자인 李玄錫(1647-1703)은 이수광의 舊業인 水城莊에 들렀다가 이웃인 李浚慶(1499-1572) 후손의 집에 소장되어 있던 『고씨화보』를 보고 그림을 보는 안목을 배웠다고 하였다.⁵¹⁾

『고씨화보』는 그 뒤에도 널리 열람된 것으로 보인다. 李夏坤(1677-1724)은 골동서화의 수집가로 유명한 인물인데 李在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는 화보는 『고씨화보』뿐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⁵²⁾ 丁若鏞(1762-1836)도 시를 지으면서 『고씨화보』를 언급하였다. 그런데 정약용은 『고씨화보』에 대해 ‘三百本’이라고 하여 흥미를 끈다.⁵³⁾ 물론 시에 쓰인 표현이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백여 점에 불과한 화보를 보고 ‘三百本’이라 표현한 것은 과장이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고씨화보』가 널리 유행하자 다른 그림들을 덧붙여 『고씨화보』를 대폭 증보하였다는 추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50) <衡山三絶貼跋>, 『記言·別集·跋』(총간 99), 권10, p.96d.

51) 이현석, <水城莊記>, 『游齋先生集』(총간 156), 권18, p.536a; 이현석, <覽顧氏譜>, 같은 책, 권2, p.350b.

52) “元美苑, 陳仲醇史, 俱不見李在名, 而獨於顧譜中見之. 今觀其筆法, 微帶父面目, 然亦自蒼健不俗. 一源近又得此君山水障子, 尤覺莽宕淋漓, 大抵不免太豪. 論其品格, 不堪佐文進輩下風也.(右題李在人物)”(이하곤, <題一源所藏宋元名蹟>, 『頭陀草』(총간 191), 冊十八, pp.561b-561c)

53) “顧家譜三百本, 范寬雪景鳴藝苑”(정약용, <江村賞雪, 懷申學士兄弟, 走筆寄呈>, 『與猶堂全書·一集』(총간 281), 권7, p.152c)